

“이스탄불 캠퍼스에 불교 사원 세워달라”

터키 대학생 3만여명 '불교사원' 짓기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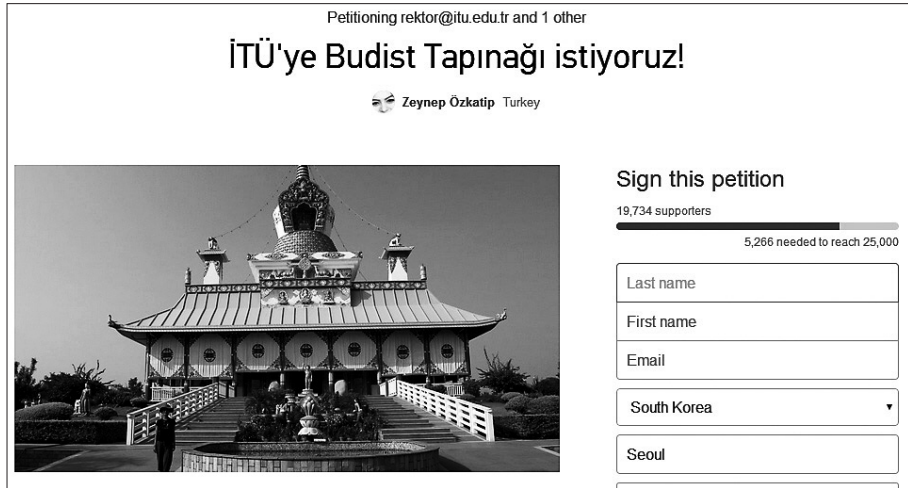
터키의 대학생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회교 부양책'에 반기를 들고 나선 가운데 '캠퍼스에 회교 사원만 세울 게 아니라 불교 사원도 세우자'는 온라인 캠페인이 전개되어 주목된다.

(Daily News) 지는 4월 6일(현지시간) "인구의 95% 이상이 회교도인 터키에서 '대학 캠퍼스에 불교 사원을 세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터키의 명문 이스탄불 기술 대학(Istanbul Technical University)에서 시작된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터키 사회의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Daily News) 지에 따르면, 이스탄불 기술대학에서의 '불교 사원 건축 캠페인'은 지난 3월 중순 '대학 내 회교 사원이 세워질 것이다. 신축되는 사원은 지역 사회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대학 운영위원회의 발표가 단초가 되었다.

이스탄불 기술대학 운영위원장 메흐멧 카라카(Mehmet Karaca) 교수는 '회교 사원 신축' 발표와 함께 터키의 온라인 캠페인 전문 사이트 'change.org'를 통해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학 재학생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재학생 대부분 대학 운영위원회가 '종교적 포퓰리즘'에 빠져 연구 풍토를 개



터키 대학생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회교 부양책에 반기를 들고 '회교 사원만 세울 게 아니라 불교 사원도 세우자'며 'change.org'에 불교사원 짓기 투표 캠페인을 벌였다.

회교사원 지으려 하자 '불교사원'도

온라인 사이트서 3만5천명 찬성 투표

터키 정부 80여 대학 사원 건축 진행

학생들 "연구 풍토 개선 주력할 때"

선하고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일을 의면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학생들은 change.org에서 '불교 사원을 세우자'는 또 다른 캠페인을 전개, 이스탄불 기술대학의 캠페인에 맞불을 놓았다.

'change.org'에 따르면 현재까지 '불교 사원을 세우자'는 캠페인에 찬성표를 던진 재학생의 수는 3만 5천여 명

에 이른다.

온라인 캠페인 전문 사이트 'change.org'에 '불교 사원을 세우자'는 캠페인을 처음 제안한 제이넵 오즈카티프(Zeynep Ozkatip · 3학년)는 "터키 헌법은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스탄불 기술대학의 운영위원회는 재학생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즈카티프는 "change.org'에 캠페인을 처음 제안했다는 이유로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며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 관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오즈카티프의 제안에 찬성표를 던진 우르쿠 구르카그 보라텍(Utku Gurcag Boratac · 2학년)은 "캠퍼스에서 가장 가

까운 불교 사원은 2,000km 떨어져 있어 내 종교에 충실할 수가 없다"며 "나는 점심시간에 짬을 내 법당을 찾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Daily News) 지는 "이스탄불 기술대학 재학생의 '불교 사원을 세우자'는 캠페인에는 건축 기금도 함께 조성되고 있어, 터키의 대학 캠퍼스에서 첫 불교 사원이 세워질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Daily News) 지는 "터키 정부는 지금까지 80여 곳의 대학 캠퍼스에 회교 사원을 짓고 있다"며 "이는 대학의 다양성을 역행하는 정책이며 다른 종교를 믿는 대학생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터키 정부의 행정 수뇌부는 '수니파' 중심 체제로 알려져 있다.

터키는 헌법상 국교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국민의 약 95% 이상이 이슬람교 수니파다. 따라서 터키의 법률이나 사회 조직이 이슬람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의 전통과 관행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이런 학생들의 캠페인은 터키 대학에서의 '민주성'에 대해 자문하는 성격이 짙다"고 전해한 (Daily News) 지는 "터키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한 만큼 대학 지원 정책을 종교 중심에서 연구 중심을 이동해야 해야 하고, 대학 내 종교 지원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중욱 편집위원

中 용천사, 애니메이션으로 불법 전한다

좌충우돌 행자스님 만화 인기... 팔로워 30만 명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용천사(龍泉寺)는 애니메이션을 통한 불법 홍보에 나서 젊은 층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사찰순례 등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던 과거 신행방법에서 벗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쉽게 불교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다.

1500년 된 용천사는 2011년 '용천 만화애니메이션 그룹(Longquan Comic and Animation Group, 이하 LCAG)'을 설립하고 불교 교리를 담은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왔다.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고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 웨이보·위챗 등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보통 1~3분짜리 내용으로 구성되는 애니메이션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며,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인도하는 내용을 주로 다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은 산얼이라는 승려가 등장 스톱모션 애니메이션(stop-motion animation,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조금씩 이동하면서 카메라로 촬영하여 마치 물체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영화 촬영 기술)이다. 통통한 체구에 천진난만한 행자 스님인 산얼 스님이 스승에게 혼나기도 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깨달아가는 과정은 보는 이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준다는 평을 얻고 있다.

용천사 주지 쉘칭 스님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목적은 부처님 가르침을 불자들에게 더욱 쉽고 가깝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교의 핵심은 경전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자신의 삶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해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1500년 된 용천사는 2011년 '용천 만화애니메이션 그룹(Longquan Comic and Animation Group, 이하 LCAG)'을 설립하고 불교 교리를 담은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왔다. 사진은 만화애니메이션그룹에서 제작한 산얼 승려 애니메이션의 캡처 화면.

말했다. 쉘칭 스님이 직접 운영하며 매일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웨이보 계정은 3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웨이보나 위챗은 오늘날 불교를 젊은 세대에 전파하고 공유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라며 "사찰순례 등 전통적으로 이어온 신행방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소통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광둥지역신문 남방일보(南方日報)는 2012년 "수도문화가 아시아 전역에서 감소를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 몇 년 간 중국 불자의 수는 오름세를 나타냈다"며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포교방식은 중국 불교 부흥의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LCAG의 제작자인 리우펄은 "불교를 부흥시키는 데는 형식상 한계가 없다"며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와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는 그들에게서 외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익삼 수습기자

美 중국인 유학생 불교 의학 시원 추적

고승전을 중심으로 의승 행적 연구...IT 기술로 맵핑

송고승전에 등장하는 6명의 의승(醫僧)의 여정이 IT 기술과 만나 맵핑(지도화) 과정을 거쳐 시각화 작업에 들어갔다.

(Penn State) 지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예빙톤 분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3명이 고승전(Memoirs of Eminent Monks)에 등장하는 6명의 의승(醫僧)을 추적하고, 행장을 정리하는 한편 IT 기술을 접목, 데이터 맵핑 과정을 거쳐 시각화 작업에 들어갔다"며 "이번 연구는 아시아 유학생의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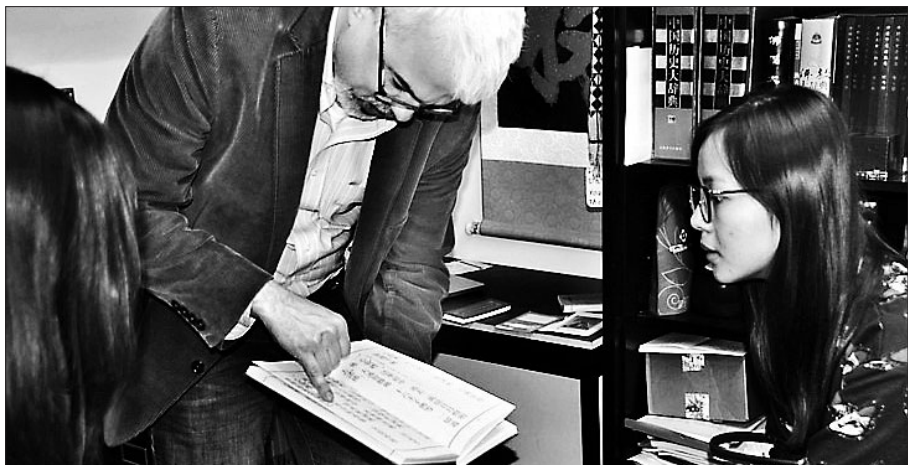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예빙톤 대학 연구 프로젝트(Abington College Undergraduate Research Activities project)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예빙톤 분교에서 '아시아 문화·종교' 연구 과정을 밟고 있는 메이치 첸(Meizi

Chen), 쉘원 황(Kaiyuan Huang), 웨이콰안 쉐(Weiqian Sheng)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연구 지도는 피어스 셸그레오(C. Pierce Salguero) 교수가 맡았다.

"3명의 연구자들이 중국인 유학생이기는 하지만 고대 불교 전적의 불교 용어나 용례를 올바르게 읽고 번역해야 하는 연구는 결코 녹록하지 않다"고 말한 셸그레오 교수는 "이들은 노력이 관례 학계의 연구 자료로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첸 연구원은 "고대 중국어 보다는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하는 과정이 힘들었다"며 "고승전에서 6~10세기 경에 활동했던 의승을 추적하고, 그들의 행장을 통해 활동했던 지역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황 연구원은 "불교 의학의 형상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예빙톤 분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3명이 고승전(Memoirs of Eminent Monks)에 등장하는 6명의 의승(醫僧)을 추적하고, 행장을 정리하는 한편 IT 기술을 접목, 데이터 맵핑 과정을 거쳐 시각화 작업에 들어갔다.

발전을 볼 수 있는 맵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6명의 의승들이 활동했던 지역은 수행과 신행의 클러스터라고 볼 수 있

며, 이에 대해 IT 기술을 접목한 맵핑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불교 의학의 확산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중욱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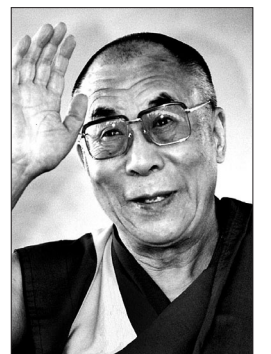
달라이라마, 티베트 자치 촉구

일본 언론인터뷰서 언급해

일본에서 열리는 불교 심포지엄에 참석차 지난 2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 티베트의 정실직 지도자 달라이라마(사진)가 티베트의 자치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4월 5일 달라이라마는 인터뷰를 통해 "티베트 불교를 보존하는 것은 티베트인뿐 아니라 모든 중국인의 관심사"라며 티베트에 대한 '고도의 자치'를 촉구했다.

'고도의 자치'는 티베트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달라이라마와 티베트 망명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중국 헌법 안에서 종교, 문화, 교육, 경제 등 외교·안보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티베트인에 의한 실질적인 자치를 의미한다.



달라이라마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언어와 불교지식, 문화·생태를 포함한 티베트의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전통적인 불교국가로서 그중 많은 사람이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화를 원하는 입장에는 변함 없느냐는 물음에 "물론이다"고 답한 달라이라마는 그러나 "나는 정치적 책무에서 은퇴했다"고 덧붙였다.

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당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기iban

나만의 완성세계 기iban

기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면 기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기iban

기iban

종전 산장과 만년 고명탄 나외의 만년입니다

www.hyunbulshop.com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